



東 · 亞 · 文 · 化 · 44

〈孟子〉의 해석과 字義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허 성 도

1. 서론
2. '賤'의 의미에 대한 문제
3. '糞'의 의미에 대한 문제
4. '宴'의 의미에 대한 문제
5. '封'의 의미에 대한 문제
6. '磯'의 의미에 대한 문제
7. 결론

〈孟子〉의 해석과 字義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허 성 도*

1. 서론

맹자는 한문의 전형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맹자 문장의 곳곳에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원인은 논리적 혼란에 있기도 하고, 문법적 문제, 예를 들면 주어가 무엇이며, 생략된 부분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관련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의 일부는 정확한 字義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字義를 정확하게 분석함에 따라 진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字義를 추구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장의 해석에 필요한 字義가 자전에 나와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자전의 의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찌해야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자전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전에서 어떤 한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에 나와 있지 않은 의미는 그 한자의 의미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은, 의미란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서 출발한다. ‘사랑’이나 ‘증오’라는 어휘의 의미를 자전이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자전은 또한 이미 사용되지 않는 옛 의미를 의미항에서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편찬자의 철학이나 편의의 추구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어떤 자전이라도 각 어휘의 모든 의미를 기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휘는 ‘사랑’과 ‘증오’처럼 다양한 이미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며, 하나의 의미가 가지는 다양한 표현을 모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휘의 의미에 대한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의 의미와 상관없이 어휘를 사용한다. 자전이 없던 시대에도 문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전의 의미 해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전이 제시하는 의미 이외의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두 사실을 말해준다. 본고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字義를 찾아 가기로 한다. 자전이 제시하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甲骨文의 의미를 字義로 삼기도 하였으며, 甲骨文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간 관찰 규칙¹⁾에 의한 字義 추구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소개하고, 그 타당성을 묻기 위하여 본고를 작성한다.

2. ‘賤’의 의미에 대한 문제

1) 허성도(1996)을 참고할 것.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공간 관찰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다.

孟子 公孫丑下 10章 7節에는 맹자가 壟斷의 故事를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古之爲市者，以其所有，易其所無者，有司者治之耳。有賤丈夫焉。必求龍斷而登之，以左右望而罔市利，人皆以爲賤，故從而征之，征商自此賤丈夫始矣。

위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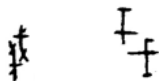
옛날의 매매 행위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 곳을 관리하는 사람은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할 뿐이었으며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천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언덕에 올라가 좌우를 살펴보고 이쪽편의 싼 것을 저쪽에 팔고, 저쪽편의 싼 것을 이쪽에 팔아 이곳의 이익을 모두 취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천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였다.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 천한 사나이로부터 시작되었다.²⁾

본고가 문제 삼는 것은 위 문장 가운데의 ‘賤’의 해석이다. 지금까지 모든 해석은 ‘賤’을 ‘천하다’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故從而征之’의 ‘故’에 유의하여보자. ‘故’는 ‘원인-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그러므로 ‘罔市利，人皆以爲賤’은 ‘從而征之’하게 되는 정확한 원인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매의 모든 이익을 취하여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금을 징수하는 원인이 된다. 이 경우 ‘故’의 중점은 ‘罔市利’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人皆以爲賤’에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보기로 하자. 첫째, ‘故’의 중점이 ‘人皆以爲賤’에 있다고 가정하면, 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

2) 이 해석은 필자의 해석이다. 여기에서는 ‘市’를 ‘매매 행위’로 보고, ‘有司’를 일정한 관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필자의 해석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국내외의 모든 번역이 ‘賤’을 ‘천하다’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했다는 말이 된다. 사람이 천하다고 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의 근거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성립될 수 없다. 둘째, ‘故’의 중점이 ‘罔市利, 人皆以爲賤’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보더라도 첫째의 경우와 같은 논리가 된다. 왜냐 하면 문장의 중심은 결국 ‘人皆以爲賤’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 ‘征商自此賤丈夫始矣’의 ‘賤’이 앞의 ‘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셋째, ‘故’의 중점이 ‘罔市利’에 있다고 가정하면 매매의 이익을 많이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는 논리가 된다. 이 논리는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이제 재산이 많으면 천하다고 생각하는 후대 儒家의 일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위에 나온 丈夫의 행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위의 丈夫는 물자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여 언덕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관찰한 결과로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거나 부당하다는 지적은 위 문장에 나와 있지 않다. 유일한 결과는 그가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고 富의 편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하여 그를 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 이러한 사람을 賤丈夫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罔市利, 人皆以爲賤, 故從而征之, 征商自此賤丈夫始矣’가 ‘이익을 많이 얻게 되자, 사람들이 그를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에게 세금을 징수하였다.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재산을 많이 모은 이 사나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논리가 된다. 이러한 가정은 결국 ‘賤’의 의미를 ‘천하다’가 아닌 ‘재산이 많다’로 보자는 것이다. 이제 ‘賤’에 ‘재산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³⁾ ‘賤’은 ‘貝’와 ‘戔’

이 합쳐진 한자이다. ‘𡵓’의 甲骨文은 다음과 같다.



馬如森(1993:611)은 위의 甲骨文 ‘𡵓’이 “두 개의 창이며, 本義는 ‘多’이다. 그러나 이 의미가 변하여 ‘𡵓’은 ‘少’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이상하다. 어떻게 ‘많다’는 의미가 ‘적다’는 의미로 변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하자. 여기에는 한자의 세계를 나타내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甲骨文 ‘𡵓’의 형태를 보며 오늘날의 자전에 나와 있는 ‘𡵓’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오늘날의 자전에는 ‘𡵓’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 해치다, 상처를 입히다 2. 나머지 3. 적다, 얼마 되지 아니하는 모양
4. 수효가 많은 모양 5. 쌓다, 쌓이다

甲骨文 ‘𡵓’은 창이 쌓여있는 모습이다. 창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이다. 그러므로 ‘해치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가 나올 수 있다. 두 개의 창은 사실은 수많은 창을 상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로부터 ‘수효가 많은 모양, 쌓다, 쌓이다’라는 의미가 나온다. 쌓아놓은 모습은 미래의 수효를 위한 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용한 후에 남은 것의 저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나머지’라는 의미가 생긴다. 두 개로 많은 것을 표시하거나, 쌓아 놓은 모양으로부터 ‘많다’

3) 說文解字에는 ‘賤, 賈少也’라고만 나와 있으며, 漢語大字典에는 ‘재산이 많다’라는 의미항이 없다.

와 ‘나머지’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의미 양식은 특수한 것이 아니다.⁴⁾ 인지언어학에서 흔히 인용하는 ‘Image Schema’는 인간이 하나의 그림을 다양하게 인식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으며⁵⁾, 사회생물학자들도 인간은 하나의 현상을 정반대의 사실로 인식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Don’t play opossum!’은 ‘죽은 척하지 말라’는 유모어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 된다. 운동 경기 중에 쓰러진 선수에게 동료가 이런 말을 하면 쓰러진 선수는 웃으며 일어난다. 그러나 학급 친구에게 ‘Play opossum!’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곧잘 화를 낸다. 이 경우의 ‘opossum’은 ‘사기꾼’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opossum(주머니쥐)’의 특성 때문이다. 주머니쥐는 적을 만나면 꼼짝도 하지 않고 쓰러져 버린다. 그리고 이것을 본 적이 멈칫거리는 사이에 재빨리 일어나 도망쳐버린다. 사람들은 이 쓰러진 모습을 ‘정말 죽은 것, 정말 기절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거짓으로 죽은 척’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 이에 따라 ‘opossum’에는 ‘사기꾼’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𠂔’의 쌓아놓은 모양을 ‘축적’으로 보기도 하고, ‘나머지를 모아놓은 것’으로도 보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한 편 다른 입장에서 보면 창은 가늘고 길다. 그러므로 두 개의 창이 쌓여있는 모습은 가늘고 긴 것이 얇게 포개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적다, 얼마 되지 아니하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생긴다. 이는 두 개의 창을 많은 창을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 두 개로만 보는

4) 甲骨文 ‘多’는 두 쪽의 고기를 쌓아놓은 형태인데, 이러한 ‘多’에도 ‘많다’와 ‘나머지’라는 의미가 공존하며, ‘長’에도 ‘쌓다’와 ‘나머지’라는 의미가 공존한다.

5)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rubbin’의 그릇’ 그림이다.

6) B.F 세르게이에프(1993:136-137)을 참고할 것.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馬如森(1993:611)이 “‘𣎵’의 本義는 ‘多’이며, 이 의미가 변하여 ‘少’의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말한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미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이 쌓여 있는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파악한 것일 뿐이다.⁷⁾ 이제 이러한 ‘𣎵’이 하나의 의미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본고는 위의 甲骨文의 형태에 근거하여 ‘𣎵’의 의미소를 ‘잘게 쌓임, 잘게 나눔’으로 본다. ‘잘게 나눔’은 창이 쌓여있는 모습이 잘게 나뉘어 쌓인 모습으로 보이는 데에서 나온 생성된 의미소이다. 다음은 모두 ‘𣎵’을 구성요소로 갖는 한자이다.

踐(발+잘게 쌓임→발이 많이 움직임) : 밟다, 걷다
 殘(부서진 뼈+잘게 쌓임) : 잔혹하다
 盞(그릇+잘게 쌓임→쌓아놓을 수 있는 얇은 그릇) : 잔
 棧(나무+잘게 쌓임→나무를 잘게 나누어 모아 놓은 형태) : 棧橋
 錢(쇠+잘게 쌓임→쇠가 잘게 쌓이는 것→동전꾸러미) : 돈
 餼(음식+잘게 나눔→잘게 나누어주는 음식) : 臨行時에 싸주는 음식.
 淺(물+잘게 나눔) : 물이 얕다
 剗(칼+잘게 나눔→칼로 잘게 나눔) : 깎다
 簍(대+잘게 나눔→대쪽을 잘게 나누어 놓은 것→竹簡) : 쪽지, 주해
 幪(수건+잘게 나눔→천을 잘게 나누어 놓은 것) : 기저귀
 牋(나무 판자+잘게 나눔→고대의 목간) : 장계, 문서, 종이
 談(말+잘게 나눔→잘게 나누어 말함) : 교묘히 말하다, 아첨하다

위의 한자는, ‘𣎵’이 다른 한자와 합쳐져서 하나의 한자를 구성할 때, 그 의미소가 보존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가 합리적이라면 이제 ‘賤’의 본의를 추구하여 보기로 하

7) 이와 같이 하나의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의미가 나타내는 예는 한자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허성도(2000)을 참고할 것.

자.

賤(재물+ 잘게 썰임) : 재물이 많다⁸⁾

위의 논의에 의하면 ‘賤’의 본의는 ‘재물이 많다’가 된다. 오늘날의 사전에는 ‘賤’에 이를 나타내는 의미항은 없다.⁹⁾ 그러나 다음 문장을 보자.

慶源輔氏曰……大荒大札，則令邦國移民，以辟災就賤。

위는, 孟子 梁惠王上 3章 2節의 ‘五十步百步’를 설명한 부분의 朱子 注에 대한 小注로 나오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엄청난 기근이 들거나 엄청난 전염병이 돌면, 나라의 백성을 이주시켜서, 재난을 피하여,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의 ‘賤’은 ‘물산이 풍부하다’, 즉 ‘재물이 많다’라는 의미 이외의 어떤 의미로도 해석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이 문장은 ‘賤’에 ‘재물이 많다’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¹¹⁾ 그렇다면 이제 본고의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본론은 ‘罔市利，人皆以爲賤，故從而征之，征商自此賤丈夫始矣’를 ‘이익을 많이 얻게 되자, 사람들이 그를 재산이 많다고 여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에게 세금을 징수하였다. 상인에게 세금을

8) ‘賤’은 ‘ㄹ’과 ‘賤’이 합쳐진 한자인데 이 의미는 ‘물방울이 휘날리는 것, 폭포의 물보라’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도 ‘賤’이 ‘무엇인가 많이 썰여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9) 大漢和辭典과 漢語大字典에는 이러한 의미항이 없다.

10) 漢語大字典에 제시된 ‘賤’의 의미는 ‘價格低，地位低下，指技藝或品質低下，地位低下的人，使其地位低下，輕視，鄙視，廢棄，謙詞，實行，姓’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어느 의미로도 위 문장이 해석되지 않는다.

11) 오늘날의 사전에 존재하는 ‘賤’의 의미는 모두 ‘재물이 많다’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정수하는 것은 재산을 많이 모은 이 사나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제 '賤'의 원의미가 '재물이 많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만이 논리적 모순을 범하지 않는다.

3. '糞'의 의미에 대한 문제

孟子 滕文公上 3章 7節에는 세금의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이 가운데 본고가 문제삼는 것은 '凶年糞其田而不足'의 '糞'의 의미이다. 다음은 이 부분이 나오는 앞뒤의 내용이다.

龍子曰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校數歲之中, 以爲常, 樂歲粒米狼戾, 多取之, 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糞其田而不足則必取盈焉, 爲民父母使民睨睨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使老稚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也.

위 문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¹²⁾

(1) 龍子가 말하기를, '토지를 다스림은 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고, 貢法보다 나쁜 것이 없으니, 貢이란 몇 년의 중간치를 비교하여 일정한 수를 내게 하는 것이다. 樂歲(豊年)에는 곡식이 狼藉하여, 많이 취하여도 포악함이 되지 않을지라도 적게 취하고, 흉년에는 그 토지에 肥培하기에도 부족하거늘 반드시 <일정액>을 채움을 취하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한스럽게 보아 장차 일년 내내 부지런히 노동하여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또 빚을 내어 보태어서 세금을 내게 하여, 늙은이와 어린아이로 하여금

12) 여기에는 일본의 번역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번역도 아래에 제시한 국내의 번역과 다르지 않다. 본고가 이 이후에 제시한 모든 번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일본의 번역에 대하여는 小林勝人(2003:194)를 참조할 것.

溝壑에서 전전하게 한다면, 백성의 부모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하였습니
다.¹³⁾

(2) 용자(龍子)란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지요. ‘토지를 다스림은 조법(助法)
보다 훌륭한 것이 없고, 공법(貢法)보다 나쁜 것이 없다. 공법이란 몇 년의
중간을 수지로 비교하여 일정하게 삼은 것이다. 풍년에는 곡식알이 낭려(狼
戾)하여 많이 취한다 해도 포박함이 아니건만 도리어 적게 거두고, 흉년에는
그 농토에 비료 뿌리기에다 부족하거늘 반드시 정한대로 채우려 든다. 백성
의 부모가 되어 백성으로 하여금 눈을 흘기게 하며, 장차 일년 내내 부지런
히 하고도 그 부모조차 봉양할 수 없도록 하며, 게다가 빚을 내어 세금에 보
태게 한다. 그리하여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구학(溝壑)에 나뒹굴게
하니 백성의 부모됨이 어디 있겠는가?’ 라구요.¹⁴⁾

(3) 용자(龍子)는 ‘농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법보다 좋은 것은 없고, 공법보
다 나쁜 것은 없다. 공법이란 여러 해의 평균 소출을 계산해 가지고 일정한
납부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풍년에는 낱알이 마구 흩어
져 나므로 많이 받아내도 포박한 것이 되지 않는데, 그럴 때에는 적게 받아
가고, 흉년에는 소출이 밭에 거름할 비용에도 모자라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정한 액수에 채워서 받아잡니다.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 가지고 백성들을 거
의 1년 내내 설새 없이 움직이게 만들고서, 그들의 수입으로 자기 부모조차
도 봉양할 수 없게 되고, 또 빌려 쓰는 것으로 하여 이식(利息)을 붙여 늘어
서 늙은이와 어린것들을 시궁창에 굴러들어가 죽게 만든다면 백성들의 부모
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¹⁵⁾

(4) 고대의 賢者인 龍子는 ‘田稅는 助法이 가장 좋으며, 貢法이 가장 나쁜
다’라고 말했다. 貢法은 몇 년의 수확을 비교하여 일정한 세금액을 정한다.
(수확량이 풍부하거나 흉년을 당함에 관계없이 이 세금액에 근거하여 세금
을 징수한다.) 풍년이 되어 수확량이 많으면 도처에 곡물이 널려있으므로 세
액을 많이 징수해도 조금도 가혹한 것이 아닌데, 절대로 많이 징수하지 않으
며, 흉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서 각 가정의 수확량이 심지어 다음 해의 거
름비용으로도 충분하지 않은데, 또한 세금액을 완전히 채우지 않으면 안 된
다. 백성의 부모라고 불리는 일국의 군주가 백성으로 하여금 일년 내
내 고생스럽게 노동을 하게 하고도, 결과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조차도
충분하게 할 수 없으며, 게다가 높은 이자의 빚을 얻어 납세액을 채우게 하
니, 마침내 한 집안의 老小가 산의 구렁텅이에 뼈를 드러낸 시체로 구르게

13) 成百曉(1999:147)

14) 林東錫(2006:217)

15) 車柱環(2002: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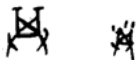
된다. 그렇다면 백성의 부모된 기능이 또한 어디에 있겠는가?¹⁶⁾

이제 본고에서 문제 삼고 있는 ‘凶年糞其田而不足’의 해석을 보자. (1-2)의 ‘흉년에는 肥塿하기에도 부족하다’ 혹은 ‘비료를 뿌리기에도 부족하다’는 결국 ‘흉년에는 거름을 주기에다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다. 첫째, ‘흉년에는 거름을 주기에다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면 거름을 뿌리는 데에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고대의 농사라면 거름은 평소에 마련하는 것이지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름을 뿌리는 경우에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러나 고대의 농업 공동체 사회에서 거름 뿌리는 비용을 주고받는다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둘째, 또한 흉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여름 혹은 가을이 되어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름은 이 시기 이전에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흉년에는 거름을 주기에다 부족하다’라는 위의 해석은 봄에 이미 흉년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필자는 (3)의 해석에도 동의할 수 없다. (4)는 ‘糞’을 ‘다음 해의 거름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거름 비용’이라는 번역하는 경우에 바로 위에 지적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번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 해의 거름도 농부는 경비를 들이지 않고 마련한다. 이는 불과 얼마 전의 우리나라의 농법을 보아도 자명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糞’의 해석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이에 대한 제가의 주석을 보기로 하자.

趙岐는 ‘凶年糞其田而不足’에 대하여 ‘至於凶年饑歲，民人糞其田，尚無所得，不足以食’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焦循도 이에 대하여 ‘至於凶年

16) 楊伯峻(1977:119)

飢歲，民人糞治其田，尙無所得，不足以食'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두 '糞'의 해석을 기피한 주석이다. 이 경우의 '糞'을 '거름을 주다'라고 하면 위에서 지적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朱子は '糞，壅也'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糞'을 '흙을 복돋우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흉년에 흙을 복돋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흉년이 아니면 흙을 복돋우지 않는다는 것인가에 대하여, 더구나 여름이나 가을이 되어 흉년이 들 것이 분명해진 다음에 땅을 복돋우는 것이 세금을 내기 힘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적절한 해답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주석에서는 이 문장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糞'의 원의미를 찾아보기로 하자. 다음은 '糞'의 甲骨文이다.



위의 甲骨文 '糞'에 대하여 徐仲舒(1990:438)는 '두 손으로 키를 들고 오물을 털어 내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糞'은 곧 '키질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說文解字에서 '糞는 버려서 제거한다는 뜻'¹⁷⁾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徐仲舒의 甲骨文 '糞'에 대한 해석은 오류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凶年糞其田而不足'를 해석하면 '흉년에는 밭을 키질해도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곧 '흉년에는 밭의 흙을 키질하여 흙과 티끌 등의 오물을 버리고 이삭을 하나하나 모두 모아도 먹고살기에 부족하다'가 된다.¹⁸⁾ 이는 식

17) 糞，棄除也.

18) 필자가 어린 시절까지도 농부들은 흙길에 수확한 벼를 털어놓고 말렸다. 그리고 마른 벼를 거두는 마지막 과정에는, 바닥의 흙을 모아 키질하여 한 톨의

량이 부족함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문장이 되며, 선후의 내용이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4. ‘宴’의 의미에 대한 문제

孟子 滕文公下 3章 3節에는 ‘惟士無田, 則亦不祭, 牲殺器皿衣服不備, 不敢以祭, 則不敢以宴, 亦不足吊乎’라는 문장이 나온다. 본고가 문제삼는 부분은 이 가운데의 ‘宴’의 해석이다. 이 문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선비는 祭田이 없으면 또한 제사를 지내지 못 한다’고 하였다. 牲殺과 器皿과 衣服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감히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감히 잔치를 하지 못하니, 또한 위문할 만하지 않은가?¹⁹⁾

(2) ‘선비로서 제사용 토지가 없다면 역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 하였다. 희생이나 기명(器皿), 의복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감히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면 감히 연회도 열 수 없다. 그러니 죽히 조문(위로)할 만 하지 않겠는가?²⁰⁾

(3) ‘오직 선비는 圭田(圭田)이 없으면, 역시 제사를 지내지 못 한다’하였 습니다. 제사에 잡아 쓸 짐승과 제기와 제복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감히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면, 감히 제사 후에 연회(宴會)도 못하니, 역시 슬퍼할 만한 것이 아니겠소?²¹⁾

(4) 생각컨대 선비가 圭田(圭田)이 없으면 역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요. 희생과 그릇과 의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감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감히 제사 끝의 주연도 베풀지 못하게 되니, 또한 위문할 만한 일 이 아니겠소?²²⁾

버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를 참고하면 고대 중국에서 밭의 흙도 키질하여 한 톨의 곡식이라도 버리지 않으려는 것은 필자에게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19) 成百曉(1999:173)

20) 林東錫(2006:257)

21) 洪寅杓(1992:200)

(5) ‘선비가 만약 (제사에 공급되는) 田地가 없다면 또한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牛羊, 祭具, 祭服을 구비하지 못하면 감히 그들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 이렇게 되면 또한 연회도 거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또한 마땅히 그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²³⁾

위를 보면 ‘宴’을 모두 ‘연회, 잔치’로 해석하고 있다. 趙岐와 焦循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趙岐：不祭則不宴猶喪人，曰不亦可弔乎.

焦循：不祭則不宴猶喪人也，不亦可弔乎.²⁴⁾

위의 주석은 ‘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번역본이 ‘宴’을 ‘연회, 잔치’로 해석한 것을 보면 위의 주석에 나오는 ‘宴’도 ‘연회, 잔치’라고 본 것 같다. 朱子는 ‘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위의 번역문을 보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선비가 잔치나 연회를 열 수 없다면, 당연히 그들을 위문해야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필자는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 첫째로 제사와 연회의 필연적 관계가 찾아지지 않으며, 둘째, 연회를 열지 못하면 위문을 해야 할 만큼 선비에게 연회는 중요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4)는 ‘제사 후의 연회’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제사의 목적이 연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宴’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속한다. 漢語大字典에는 ‘宴’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22) 車柱環(2002:374)

23) 楊伯峻(1977:143)

24) 喪人은 상을 당한 사람, 혹은 관직을 잃고 떠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1. 安閑 2. 安定 3. 喜樂 4. 謂安樂 5. 宴請
6. 筵席, 酒席, 宴會 7. 見“宴寢” 8. 通“嚙” 9. 通晏

위의 의미항의 (1-4)는 ‘편안하다, 안락하다, 즐겁다’ 계열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로 趙岐와 焦循의 주석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趙岐 :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아서, 직위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니 ‘또한 위로할 만하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이다.

焦循 :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아서, 직위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니 또한 위로할 만하지 않은가?

‘宴’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면 ‘不敢以祭, 則不敢以宴, 亦不足吊乎’는 ‘선비가 祭田이 없으면 감히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므로, 감히 마음이 편안할 수 없으니, 또한 족히 위로할 만하지 않은가?’라고 해석된다. 이 해석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선비가 위로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심정적 불안감이다. 이 해석이 위 문장의 진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漢語大字典이 현대에 들어와 편집된 사전임을 감안하면, 우리는 ‘宴’의 원의미에 과연 ‘편안하다’와 같은 의미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甲骨文 ‘𩇑’은 ‘女’와 ‘日’의 합체자이다. 說文解字에서는 ‘𩇑, 安也’라고 말하고 있다. 朱駿聲은 ‘𩇑’이, ‘女’와 ‘日’의 합체자라고 주장하고, 이 경우의 ‘日’은 ‘𩇑’의 생략형이라고 말한다.²⁵⁾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𩇑, 𩇑, 安’은 유사 의미 계열의 한자가 된다. 이제 ‘𩇑’과 ‘宴’의 자형을 비교하여 보자. 두 글자는 ‘宀’의 위치만 다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宴’은 ‘𩇑’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宴’은 ‘𩇑, 𩇑, 安’과 유사 의미 계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宴’에

25) 馬如森(1993:600)을 참고할 것.

는 ‘편안하다’ 계열의 의미가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漢語大字典의 마지막 의미항인 ‘通爽’은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5. ‘封’의 의미에 대한 문제

孟子 告子下 7章 3節에는 春秋五霸가 葵丘에서 會盟한 다섯 가지 내용이 나온다. 이 가운데 본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無有封而不告’의 해석이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封邑을 주고 나서 맹주 혹은 천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會盟의 내용과 의의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會盟의 全文이다.

初命曰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 再命曰尊賢育才, 以彰有德, 三命曰敬老慈幼, 無忘賓旅, 四命曰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夫, 五命曰無曲防, 無遏糴, 無有封而不告, 曰凡我同盟之人, 既盟之後, 言歸于好.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명령하기를 ‘불효하는 자를 처벌하며, 세자를 바꾸지 말며,妾을 아내로 삼지 말라’ 하였고, 두 번째 명령하기를 ‘어진이를 높이고 인재를 길러서 덕이 있는 이를 표창하라’ 하였고, 세 번째 명령하기를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손님과 나그네를 잊지 말라’ 하였고, 네 번째 명령하기를 ‘선비는 대대로 관직을 주지 말며, 관청의 일을 겸직시키지 말며, 선비를 취함에 반드시 얻으며, 마음대로 大夫를 죽이지 말라’ 하였고, 다섯 번째 명령하기를 ‘제방을 굳게 쌓지 말며, 쌀을 수입해 가는 것을 막지 말며, 大夫

들을 封해주고서 告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하고, 말하기를 ‘무릇 우리 동맹한 사람들은 이미 盟約한 뒤에 좋은 데로 돌아가도록 하자’라고 말했다.26)

(2) 첫 명령에 ‘불효한 자는 誅責하며, 세워 놓은 세자를 바꾸지 말 것이며, 쫓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으로 ‘어린이를 존경하고 인재를 기르며 덕 있는 자를 표창하라’ 하였다. 세 번째 명령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귀빈과 여객에게 소홀히 하지 말라’였으며, 네 번째 명령은 ‘선비는 관직을 세습 하지 말 것이며, 관직은 사무를 겸직시키지 말며, 선비를 취함에 반드시 정당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대부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였고, 다섯 번째 명은 ‘굶은 제방을 없애 하고, 이웃 나라의 식량대여를 막지 말며, 봉토를 주고도 신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무릇 나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맹약을 맺은 후, 지난날의 우호관계로 되돌아 간다’라 하였다.27)

(3) 맹약서 제1조에는 ‘불효자를 죽이고, 정해진 태자(太子)를 바꾸지 말고, 첩을 처로 삼지 말라.’하였고, 2조에는 ‘현인을 존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덕 있는 사람을 표창하라.’ 하였고, 3조에는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외빈(外賓)과 여객을 잊지 말라.’ 하였고, 4조에는 ‘선비에게 관직을 세습 시키지 말고, 관가의 일은 겸직함이 없게 하여, 선비를 채용함에 반드시 인재를 얻어야 하고, 마음대로 대부를 죽이지 못한다.’ 하였고, 5조에는 ‘법을 곡해하여 금방(禁防)을 마련하지 말고, 양곡의 매입을 막지 말며, 사사로이 봉상(封賞)을 하고서 보고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고, (마지막으로), ‘무릇 우리 동맹인은 이미 맹약을 한 뒤에 우호적인 관계로 지낸다.’ 하였다.28)

(4) 제1조의 맹약은 ‘불효한 사람은 誅責하며, 太子를 폐하지 말며, 쫓을 아내로 삼지 말라’이고 제2조의 맹약은 ‘현자를 존중하고 인재를 기르며 덕 있는 자를 표창하라’이다. 제3조의 맹약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귀빈과 여객에게 소홀히 하지 말라’이다. 제4조의 맹약은 ‘士의 관직은 세습하지 않도록 하며, 官家의 직무는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선비의 채용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대부를 죽여서는 안 된다’이고, 제5조의 맹약은 ‘아무 곳이나 제방을 쌓지 말고, 이웃나라가 식량을 매입하고자 할 때 이를 막지 말며, 賞으로 封土를 주고도 이를 (盟主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맹에 참여한 모든 우리 모

26) 成百曉(1999:360)

27) 林東錫(2006:562)

28) 洪寅杓(1992:400)

두 맹약을 맺은 이후부터는 지난날의 우호관계를 완전히 회복한다'라고 말했다.²⁹⁾

春秋 五霸들은 왜 이러한 會盟을 하게 되었을까? 가장 근본적 이유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고, 최소한 당분간은 그들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령 會盟의 내용이 위장된 것이었거나, 강자 혹은 약자의 일시적 도피의 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시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조가 필요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동맹의 마지막 구절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맹약의 내용은 그들이 자국을 통치하고, 상호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맹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사항은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위에 제시한 바와 같다. 朱子는 이에 대하여 '이들 세 가지는 修身하여 집안을 바르게 하는 요체(初命三事所以修身正家之要也)'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朱子가 말하는 수신의 주체는 누구이며, 집안은 어떠한 집안인가가 문제된다. 만약 수신의 주체를 일반적 백성이라고 보면, 집안은 백성의 가정이 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誅不孝'는 '불효자를 誅殺한다'는 의미이다. '誅'에는 물론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는 후대에 생긴 의미이다. 孟子 全篇을 통하여 '誅'는 '誅殺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라면 천하의 불효자를 誅殺한다는 말이 된다. 천하의 불효자를 誅殺하면 몇 사람이나 남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孝라는 개념도 지극히 恣意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

29) 楊伯峻(1977:288)

에 위의 해석에서는 ‘誅’를 ‘처벌하다, 誅責하다’라고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誅’의 해석을 ‘처벌하다, 誅責하다’라고 볼지라도 다음의 문제가 생긴다. ‘無易樹子’는 趙岐, 朱子, 焦循이 모두 ‘이미 책봉된 세자를 바꾸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無以妾爲妻’의 해석에 대해서도 상호간 이론이 없다. 그렇다면 ‘無易樹子’는 왕실의 집안에 대한 사항이 된다. ‘無以妾爲妻’는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五霸의 요구일까? 일단 이렇게 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는 ‘일반 가정, 왕실 가정, 일반 가정’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구성된다. 五霸의 맹약문이 백성의 가정 문제를 언급했다가 왕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다시 백성의 가정 문제를 언급하는 무질서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은 옳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假定을 버리고,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를 서로의 왕실에 대한 맹약으로 보자. 이렇게 되면 ‘誅不孝’는 ‘왕에게 도전하는 불효자는 주살한다’가 된다. 중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왕권에 도전하는 수많은 왕자의 난을 본다. 그렇다면 五霸는 이를 공포함으로써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왕자의 출현을 막는 공동의 선언을 한 셈이다. ‘無易樹子, 無以妾爲妻’도 이에서 예외가 아니다. 권력의 부침에 따라 세자를 바꾸려는 시도와, 妻妾의 지위가 변하여 발생하는 혼란은 중국의 역사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현상이다. 五霸는 이러한 상황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를 맹약의 형태로 공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맹약의 형식으로 공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는 흔히 관례 혹은 선례를 중시한다. 역사상 어떤 일이 있거나 다른 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관례나 선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례나 선례는 실천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는 서로의 약조에 의하

여 그들 자신의 권력 유지에 불필요한 관례나 선례의 발생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맞다면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는 각 왕실에 대한 五霸의 공동선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사항은 ‘尊賢育才, 以彰有德’이다. 이에는 ‘尊賢’, ‘育才’, ‘彰有德’을 평등 구조로 볼 것인가, 아니면 ‘尊賢’과 ‘育才’를 ‘彰有德’의 원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자를 존중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德者를 세상에 드러내라’인지, ‘현자를 존중하고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德者를 세상에 드러내라’인지의 문제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以’를 본래의 기능을 하는 介詞로 볼 것인가, 아니면 ‘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현자와 인재와 덕이 있는 자는 관료에 편입된 계층이 아니지만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사항은, 여론 지배 계층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五霸의 공동 선언으로 보인다. 세 번째 사항은 ‘敬老, 慈幼, 無忘賓旅’이다. ‘老幼’는 가정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이며, ‘賓旅’는 가정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서민 계층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老幼賓旅’는 국가를 구성하는 일반인 모두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³⁰⁾ 이는 모든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한 五霸의 대사회적 공동선언으로 보인다.

네 번째 사항은 ‘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夫’이다. 중국에서는 先王의 공신의 아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관직을 주었다.

30) 孟子 梁惠王上 7章 18節에는 ‘發政施仁, 使天下仕者, 皆欲立於王之朝; 耕者, 皆欲耕於王之野; 商賈, 皆欲藏於王之市; 行旅, 皆欲出於王之途; 天下之欲疾其君者, 皆欲赴愬於王, 其如是孰能禦之’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보면 고대에는 ‘發政施仁’의 한 항목으로 ‘行旅’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世官이라고 하였다. 이는 곧 관직을 世襲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런 아들이 만약 관직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면 관직을 주지 않고 祿俸만 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를 世祿이라고 한다. 그러나 五霸는 ‘士無世官’을 주장하여, 관직을 세습시키지 말자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官事無攝, 取士必得’은 관료들의 직무를 겸임시키지 말 것과 관리를 등용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약속이며, ‘無專殺大夫’는 大夫를 부당하게 죽이지 말자는 약속이다. 五霸가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된 이유를 찾기 위하여, 먼저 이러한 약속이 실행되는 경우의 受惠者를 살펴보기로 하자. ‘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의 최대 수혜자는 일반 관료 계층이다. 관직의 세습 제도가 시행되거나 관직의 겸무가 시행되면 관료 계층의 상향 진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取士必得’은 또한 유능한 관료 계층의 진출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³¹⁾ 관료 계층의 최상위에는 大夫가 있다. ‘無專殺大夫’는 최상위 관료에 대한 신분 보장이며, 이는 곧 모든 하위 관료들에 대한 신분 보장의 표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네 번째 사항은 관료사회에 대한 五霸의 공동 선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섯 번째 사항은 ‘無曲防, 無遏籴, 無有封而不告’이다. 오늘날도 하나의 강이 두 나라를 지나게 되면 두 나라 사이에는 水資源의 이용에 대한 협정을 맺는다. 강의 상류에 위치하는 나라가 임의로 댐 등을 설치하면 하류에 위치하는 나라는 그 강의 수자원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無曲防’은 ‘부당하게 제방을 쌓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이러한 제도를 나타낸다. 중국에서는 한 지역에 흉년이 들면 다른 지역에서 곡식을 사왔으며, 풍년이 들면 조정에서 곡식을 매입하여

31) 이 경우의 ‘得’은 ‘정당성’으로 해석된다.

흉년에 대비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를 ‘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자국의 곡식을 매입해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자국이 흉년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반드시 부도덕한 것은 아니었다. ‘無遏糴’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타국이 곡식을 매입해 가는 것을 제한하지 말자는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 ‘無曲防, 無遏糴’은 水利와 식량을 골자로 하는 경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無有封而不告’는 어떠한 의미일까? 위에 제시한 해석은 모두 이를 ‘封土’를 주고 다른 盟主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주석가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에 대한 趙岐, 焦循, 朱子の 주석이다.

趙岐：無以私恩擅有封賞而不告盟主也。

(私의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임의로 봉토를 주고, 이를 盟主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焦循：無以私恩擅有所封賞而不告盟主也。

(私의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임의로 봉토를 주고, 이를 盟主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朱子：不得專封國邑而不告天子也。

(임의로 봉토를 주고, 이를 천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보면 趙岐와 焦循의 주석은 사실상 동일하다. 이들은 ‘封’을 ‘封賞’, 즉 상급으로서의 封土의 수여로 본다. 그리고 封土를 주면 盟主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적 공생을 도모하려는 五霸가 오히려 정치적 압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맹약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盟主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盟主를, 會盟을 주도한 桓公으로 보면 나머지 四霸는 그에게 정

치적 복속을 선언한 것이 된다. 이는 會盟의 근본적 정신에 위배된다.³²⁾ 朱子는 이러한 불합리성에 주의하여 보고의 대상을 天子로 보았다. 물론 春秋 시대에도 최소한의 천자의 권위는 인정되고 있었다.³³⁾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정치적 행위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천자에 대한 정치적 행위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행위, 더구나 天子에 대한 정치적 행위가 경제적 내용을 다루는 ‘無曲防, 無遏糴’과 함께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無曲防, 無遏糴’이 국가 사이의 경제적 긴밀성이 유지되는 사항임에 비추어 맹주나 천자에게 정치적 사항을 보고하는 ‘無有封而不告’에는 그러한 국가 간의 경제적 긴밀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封’의 해석에 기인한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封’의 원의미를 찾아보기로 하자. 다음은 ‘封’의 甲骨文이다.



위의 甲骨文에 보이는 ‘封’의 의미는 李孝定에 의하면 ‘땅에 나무를 심어 경계를 분명히 표시한 모습을 상형’한 문자이고, 郭沫若에 의하면 ‘林木으로 경계를 삼은 모습을 상형’한 문자이다.³⁴⁾ 이에 따르면 ‘封’은 ‘땅에 나무를 심어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無有封而不告’의 의미는 ‘땅에 나무를 심어 경계를 삼고 이를 보고하지 않

32) 이러한 견해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盟約의 마지막 문장인 ‘凡我同盟之人, 既盟之後, 言歸于好’로도 증명된다.

33) 이에 대하여 程子は ‘孔子 시대에 周의 왕실이 비록 쇠약해졌다고 하지만 天下 사람들은 아직도 周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孟子 梁惠王上 3章 5節의 注文을 참고할 것)

34) 馬如森(1993:632)

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의 '땅'은 국토를 나타낼 것이다. 특별히 산맥이나 강으로 국토의 경계를 삼을 수 없는 대평원 지대에서 나무를 심어 경계로 삼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無有封而不告'는 '국토의 경계를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상대국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 해석은 '無曲防, 無遏籜'이 국가 간의 水利와 경제 문제를 다루고, '無有封而不告'이 국가 간의 국토의 경계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내용상의 일관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封'이 '封邑, 封土, 封賞'이라는 변화된 의미가 아니라 甲骨文이 갖는 최초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고는 믿고 있다.

6. '磯'의 의미에 대한 문제

孟子 告子下 3章 4節에는 '親之過大而不怨, 是愈疏也, 親之過小而怨, 是不可磯也, 愈疏不孝也, 不可磯, 亦不孝也'라는 문장이 나온다. 본고가 문제 삼는 것은 이 문장 가운데의 '磯'의 해석이다. 이에 대한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³⁵⁾

35) 漢語大詞字典에는 '磯'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1. 水沖擊岩石. 引申爲激怒, 觸犯. 《孟子·告子下》: "親之過小而怨, 是不可磯也……不可磯, 亦不孝也." 趙岐注: "磯, 激也." 朱熹集注: "不可磯, 言微激之而遽怒也."

2. 水邊石灘或突出的岩石

漢語大字典에는 '磯'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1. 水流沖激岩石.

2. 激怒, 觸犯. 《孟子·告子下》: "親之過小而怨, 是不可磯也……不可磯, 亦不孝也."

趙岐注: "磯, 激也."

(1) 아버지의 과실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욱 소원해지는 것이요, 아버지의 과실이 작은데도 원망한다면 이는 礪할 수 없는 것이니, 더욱 소원함도 不孝요, 礪할 수 없음도 또한 不孝이다.³⁶⁾

(2) 아버지의 과실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으면 이는 더욱 소원해지며, 아버지의 허물이 작은데도 원망하게 되면 가히 기(礪, 激하게함)하게 할 수 없는 게 된다. 더욱 멀어지는 것도 不孝이지만, 가히 礪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不孝이다.³⁷⁾

(3) 아버지의 잘못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욱 사이가 멀어진다. 아버지의 잘못이 작은데도 원망하면 이것은 (자식으로서) 작은 충격을 받아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不孝고, 작은 충격을 받아서 화를 내는 것도 불효다.³⁸⁾

(4) 부모의 잘못이 큰데도 오히려 원망하지 않으면, 이는 부모를 더욱 소원하게 여긴다는 표시이며, 부모의 잘못이 적은데도 오히려 원망하면, 이는 반대로 자기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부모를 더욱 소원하게 대하는 것도 不孝이며, 반대로 자기에게 화를 내는 것도 불효이다.

위의 (1-2)가 ‘礪’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은 것은 ‘礪’의 의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에서는 ‘不可礪’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고, (4)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서로 상반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不可礪’에 대한 제가의 주석을 보기로 하자.

趙岐：礪激也，過小耳，而孝子感激，輒怨其親，是亦不孝也。

焦循：礪激也，過小耳，而孝子感激，輒怨其親，是亦不孝也。

3. 露出水面的岩石或石灘

4. 摩

5. 同圻

위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 본고가 문제 삼은 부분을 인용하여 ‘礪’의 字義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36) 成百曉(1999:350)

37) 林東錫(2006:548)

38) 洪寅杓(1992:390)

朱子：磻水激石也，不可磻言微激之而遽怒也。

趙岐와 焦循의 주석은 일치한다. 이들에 의하면 ‘磻’는 ‘激하다’라는 뜻이므로 ‘부모의 과실이 적을 뿐인데도 孝子가 激한 감정을 느껴서 바로 부모를 원망하면 이는 또한 不孝’라는 것이다. 그러나 趙岐와 焦循의 이러한 해석은 ‘磻’를 설명한 것이지 맹자 본문의 ‘不可磻’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不可磻’의 뜻을 ‘磻’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東漢 시대의 趙岐의 주석이 실수라면 趙岐의 주장을 충실하게 따르는 清代의 焦循이 이를 교정했을 것이다. 더구나 焦循이 宋代 朱子の 주석을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趙岐의 주장을 따른 것은, 朱子の 설명보다 趙岐의 설명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不可磻’을 ‘磻’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문제된다.

이제 朱子の 주석을 보기로 하자. 그는 “‘磻’는 물이 부딪치는 돌이며, ‘不可磻’는 조금만 부딪쳐도 곧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磻’는 오늘날의 사전에 의하면 ‘강변에서 江岸으로 뻗어 들어간 자갈밭이나 암석’을 나타낸다. 朱子는 이를 근거로 ‘不可磻’는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분노하다’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이러한 풀이는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不可磻’라는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磻’의 의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朱子가 제시한 ‘磻’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그의 주석을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磻’가 ‘X’면 ‘不可磻’는 ‘不X’이고, ‘微激之而遽怒也’도 당연히 ‘不X’이다.³⁹⁾ 그렇다면 ‘不X’의 부정형이 바로 ‘X’가 될 것이다. ‘조금만

39)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可’는 생략하기로 한다.

부딪쳐도 바로 화를 내는 것'의 부정형은 '강하게 부딪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X', 곧 朱子가 말하는 '磯'의 의미가 된다. 朱子가 주장하는 이 의미는 趙岐·焦循이 말하는 '磯, 激也'에서의 '激'의 의미와 반대된다. 趙岐·焦循이 말하는 '激'의 의미는 '격하다, 격노하다'로 분석되기 때문이다.⁴⁰⁾ 이제 朱子의 해석이 맞고, 趙岐·焦循의 주장이 틀리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趙岐·焦循이 '不可磯'를 '磯'로 설명한 이유가 이해된다. 그들은 '磯'의 의미를 朱子와 반대로 설정했으므로 의미의 해석에서 당연히 '不可'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朱子가 말한 '磯'의 의미는 과연 '강하게 부딪쳐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즉 '인내'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磯'는 '강으로 돌출된 암석'이다. 이러한 암석에는 강물이 항상 부딪쳐 흐른다. 이로부터 '激'이라는 의미가 나올 수 있다. '激'은 원래 '湫'를 의미하므로, 돌출된 암석이 '湫'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석에 물이 부딪치므로 '激'의 의미가 생성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물과 '湫'의 관계로부터 '물결이 부딪쳐 흐르다, 흘러들다, 부딪치다, 빠르다, 격렬하다'라는 의미가 생성된다. 趙岐가 '磯'의 의미를 '激'이라고 본 것은 이러한 데에 근거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보면 '강으로 돌출된 암석'은 수많은 물결이 부딪쳐도 그 자리를 지킨다. 그러므로 이는 '강하게 부딪쳐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즉 '인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어휘의 의미는 고정적이 아니다. 의미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변화한다. 이는 동서양이 마찬가지이다. '受'는 어떤 사물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

40) 趙岐·焦循의 주석의 다음 문장을 보면 이는 자명하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동의 起點에서 보면 ‘주다’는 의미가 되고 이동의 終點에서 보면 ‘받다’가 된다. ‘買’는 값을 지불하는 代價로 물건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팔다’가 되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다’가 된다. ‘緒’는 ‘막대기 같은 것에 실을 말아놓았을 때, 맨 끝에 남은 실마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緒’는 ‘나머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을 풀어갈 때는 이것으로부터 풀어가므로 ‘시초, 시작’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鬱’은 ‘숲이 무성하다’라는 뜻이다. 무성한 숲에서는 나무가 썩기도 한다. 이에 따라 ‘썩은 냄새’라는 의미도 있으며, 숲에는 향기로운 풀도 있으므로 ‘芳草’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숲이 무성하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막히다, 막혀서 통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미가 파생되어 가는 것은 한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영어 ‘root’는 ‘조상, 시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뿌리’가 뻗어 가는 형상으로부터 ‘자손, 후예’라는 의미도 나온다. ‘rocky’는 ‘굳건한, 완고한’이라는 의미도 갖지만 ‘흔들리는, 불안정한’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rocky’의 원의미인 ‘암석이 많거나, 바위로 된’ 형상은 굳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흔들거리는 모습이 불안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roll’은 ‘말다’와 ‘퍼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 이는 예를 들면, 철사 등을 둥근 통에 말아 가는 행위를 정지시켜놓고 보면, 그 형상은 바퀴에서 철사를 풀어 가는 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⁴¹⁾

이러한 현상을 보면 ‘강으로 돌출된 암석’이 수많은 물결이 부딪쳐도 이를 건디어 내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점에 주목하면 ‘강하게 부딪쳐

41)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영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준비 중인 저서 허성도(2007)을 참고할 것.

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즉 '인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와 같이 해석하면 '親之過大而不怨, 是愈疏也, 親之過小而怨, 是不可磯也, 愈疏不孝也, 不可磯, 亦不孝也'는 '부모의 잘못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으면 이는 부모를 더욱 멀리 여기는 것이며, 부모의 잘못이 작은데도 원망한다면 이는 (부모의 사소한 잘못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부모를 더욱 멀리 여기는 것도 불효이며, (부모의 사소한 잘못을) 참지 못하는 것도 또한 불효이다'라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나온다.

7.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맹자 문장 중에서 字義의 애매성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불확실한 문장을 선택하여, 불확실의 원인이 되는 字義를 밝힘으로써 문장 전체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를 관찰하였다. 새로운 字義의 추구는 가능한 한 甲骨文의 해석에 의거하였다. 甲骨文은 의미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의미를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된다. 의미의 원형이란 다시 말하면 중국인의 의식의 원형이다. 필자는 중국인의 의식의 원형을 만나면서 이것의 상당 부분은 중국인만이 아닌 인간의 의식의 원형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는 현대 인류학이 추구하는 그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인문학의 꽃이 인류학이라면 한자 의미의 연구가 인류학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도, 본고를 작성하면서 얻은 望外의 소득이었다. 甲骨文으로 字義의 근거를 삼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필자가 설정한 字義 추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필자가 설정한 字義 추구 방법이란, 인지언어학에서 다루는 방법론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고는 인지언어학을 소개하거나

그 방법론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선행연구를 인정하지 않는 비학문적 자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또 하나의 학문적 이론에 침잠함으로써 겪어야 하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으며, 아직 완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 방법론에 필자의 자유로운 사고를 맡기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당분간 학문의 상상적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형식도 거부하고 싶다. 다만 이러한 형식의 논의가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아직 거두지 않고 있다. 諸賢의 叱正을 진심으로 기다린다.

참고 문헌

- 許 慎(1977) : 說文解字注, 蘭臺書局, 臺北
 十三經注疏(1976) : 藝文印書館, 臺北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1991) :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 成都
 楊伯峻(1977) : 孟子譯註, 河洛圖書出版社, 臺北
 徐仲舒(1990) :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成都
 焦 循(1991) : 孟子正義, 中華書局, 北京
 洪寅杓(1992) : 孟子, 서울大學校出版部, 서울
 馬如森(1993) : 殷墟甲骨文引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長春
 B.F 세르게이에프(1993) : 생리학에세이(박일태 역), 나라사랑, 서울
 許成道(1996) : 漢字意味論序說, 省谷論叢, 제27집 1권, 서울
 ____ (2000) : ‘漢語와 공간의식’ 中國文學, 제34집, 韓國中國語文學會, 서울
 ____ (2007) : (준비 중인 저서) 漢字意味論序說, 사람과 책, 서울
 成百曉(1999) : 孟子集註, 傳統文化研究會, 서울
 이영주(2000) :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車柱環(2002) : 孟子(개정증보판), 明文堂, 서울
 小林勝人(2003) : 孟子, 岩波書店, 東京
 林東錫(2006) : 四書集註諺解 孟子, 學古房, 서울